

‘목회자 학교 에즈라’에 대해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워렌톤에 있는 ‘에즈라리더십인스티튜트’에서 ‘목회자학교 에즈라’ 1기 목회자 모임에 참여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신학생/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매년 한 차례 2박 3일 모임을 열고 젊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 오면서 제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느끼는 갈증과 필요에 비하면 한 차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오랜 가뭄에 지나가는 소낙비와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적은 수의 목회자들만이 라도 좀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나눔을 가질 방법이 없을까?’ 하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낙중/이은진 교우 부부께서 에즈라 센터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이은진 교우님의 부친이신 고 이병익 장로(동방산업 대표)께서 에즈라와 같은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 사재를 들여 2003년에 마련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신병으로 인해 귀국하여 투병 하시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낙중 교우 부부께서는 부친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뉴욕에서 버지니아로 이사하시고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두분은 에즈라 같은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선친의 뜻을 실현할 날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던 중에 저의 고민과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서로 맞물리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모임을 가지면 비용 때문에 자주 모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에즈라 센터에서 모임을 가진다면 더 자주 만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목회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모임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임에 대한 필요는 목회자보다 배우자가 더 큼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에즈라 센터도 설립 정신을 작게나마 실현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목회자 학교 에즈라’가 시작되었고, 작년 9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모임의 효율성을 위해 20쌍을 넘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이 학교는 2년 과정으로서, 목회자는 년 2회, 3박 4일 동안 모입니다. 배우자 모임은 년 2회, 2박 3일 동안 모입니다. 헤어져 있는 동안에는 선정된 도서를 읽고 online으로 나누고, 함께 모이면 강의도 듣고 삶과 목회 이야기도 나눌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동역 했던 목사님들(강현식, 김유진, 임홍수)이 저와 함께 이 학교를 섬깁니다. 목회자 모임은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모이고, 배우자 모임은 꽃피는 4월에 모입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전역과 캐나다에서 오십니다. 한국에서도 오겠다는 분이 계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2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교파를 초월하여 모입니다.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또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궁금합니다.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획한 것보다 넘치게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교우들께서도 이 모임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6일 주일 설교 ‘더 나은 실천’(11) “사랑의 질서” The Order of Love

-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9장(통53)
-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읽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 말씀나눔**
- 질문 전체를 읽어 주고 자신에게 와 닿는 질문에 답하게 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예수님의 ‘황금률’이 다른 종교 경전의 황금률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 3.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자아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4.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기도**
-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사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중보기도**
-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중보하십시오.
 -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통208)
-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난 설교문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20.com



수 요 예 배

2월 19일 오후 8시 / 본당
사회: 오영석



찬양과 기도 다같이
설교 나구용 목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김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 '하루 한 말씀' 이번 주 진도는 마태복음 4장 부터 7장 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20.com에 접속하시면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묵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주일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교우 중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사랑의 헌금'이라고 쓰셔서 봉헌하시면 됩니다.
 - 오늘 예배 후에는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보호 구역 방문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장돈식 선교부장).
 - 오늘 예배 후 4시부터 213-215호실에서 예배사역부 모임이 있습니다.
 - 이번 주 화요일 <신앙의 길 101>은 목회자 학교 관계로 쉽니다.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 이번 주 목요일(20일) 오후 7시 15분에 회의실에서 '회중간 협력위원회'(위원장: 강호철)로 모입니다. 위원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 수요일(26일) 오후 7시 30분에는 CUMC와 함께 성회수요일(Ash Wednesday) 예배로 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14일(토) 오전 8시부터 <성경의 맥: 구약> 성경 공부 시작됩니다.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맥을 잡고, 역사적, 지리적, 문학적 배경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성경공부입니다. 7주간 동안 정명림 교우께서 인도하십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lchoi817@gmail.com 혹은 571-762-826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림 교우님은 신학 과정을 마치시고 전도사로 사역하셨던 평신도 성경 교사입니다.
 - 교회 소식지 발간에 참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들 또는 재능 있는 분들은 김성식 교우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703-474-1068)
 - 6월 18일(목) 버지니아 연회 추모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성가를 담당합니다. 목요일 오후 1시에 버스로 출발하여 로녹(Roanoke)에서 7시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옵니다. 교회 주차장 도착은 금요일 오전 1시쯤으로 예상됩니다. 이 일에 교우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2월 말까지 최인달 지휘자 혹은 김광순 성가대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임목사 동정: 17일(월)부터 20일(목)까지 '목회자 학교 에즈라' 인도.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아리조나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임태일/박대준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2020년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위하여
- '목회자 학교 에즈라'를 위해

주일에배

- **한어 성인에배(KS)**
오후 2시/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기도로 대신

제자반

<신앙의 길 101>
6주간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새로운 제자반/ 217호, 교재: <나는 왜 믿는가>
1차: 1월, 2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차: 3월 22일(주일) 오전 9시 시작
3차: 6월 12일(금)-13일(토) 하루 수양회
4차: 7월 10일(금) 오후 8시 시작
5차: 9월 1일(토) 오전 8시 시작
6차: 12월 11일(금)-12일(토) 하루 수양회

<성경의 맥: 구약> 인도: 정명림
3월 14일(토)에 시작 (7주 과정)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층 강의실

2월 하루 한 말씀 진도표

17일(월)	18일(화)	19일(수)	20일(목)	21일(금)	22일(토)
마태복음 4:1-17	마태복음 4:18-25	마태복음 5:1-16	마태복음 5:17-48	마태복음 6:1-18	마태복음 6:19-34

www.koinonia2020.com에서 매일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 친교

날짜	담당속회
오늘	참사랑속(정명림)
2월 23일	동행속(정도균)
3월 1일	마중물속(오한나)
3월 8일	하모니속(양승엽)

회중기도와 성경봉독

날짜	회중기도	성경봉독
다음주	오은미	임경목
3월 1일	오영석	김수지
3월 8일	배영주	김제국
3월 15일	임황규	손지현

안내와 헌금 위원

2월 - 김희수/김순자 3월 - 이준석/장지은

***주일 설교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WDCT1310 기쁜소리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2월 9일)

한어성인에배(KS)	157	주일학교	\$33
영어예배(ES)	18	주일헌금	\$145
청소년예배(Youth)	27	주정/월정	\$4,745
교회학교(Sunday School)	13	십일조	\$4,771.91
주일에배 출석 합계	215	선교헌금/UFO	\$450
수요일예배(2/12)	33	감사헌금	\$700
		사랑헌금	\$11,57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48	합계:	\$22,414.91

2020년 2월 16일 | 성탄후 여덟째 주일

본당 / 2:00pm

사회: 김영봉 목사 지휘: 최인달

피아노: 이애령 오르간: 김성은

전주 Prelude		오르간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말은이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찬송 Hymn of Praise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9장(통53) Heaven Is Full of Your Glory	다같이
●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준석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7장 12절 Matthew 7:12	정명림
찬양 Anthem	거룩한 천사여	성가대
설교 Sermon	"사랑의 질서" The Order of Love	김영봉 목사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통71) All to Jesus I Surrender	다같이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 결단의 찬송 Hymn of Commitmen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289장(통208) What a Wonderful Change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사회자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as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offering into the trays in the chapel.